녹음 우거진 '풍요의 바다' 만들어 국가 경쟁력 높인다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앞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바다 사막화 심각
암반 표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동해 62%·남해 33% 등 진행
'바다 숲' 매년 1200ha 사라져
年 어획량 44년만에 100만톤 밑으로

FIRA 바다 자원 보존 노력
5월 10일마다 바다 식목일
바다목장·수산종묘 방류
지구 온난화 현장 지원사업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7일까지 완도에서 열린 해조류박람회에 참가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부스.

갯녹음 현상 등 황폐화에 직면한 우리나라 바다를 '미래 지속가능한 바다'로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FIRA)이 주목받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다 남획, 불법어업 등이 계속되면서 근해연안 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일부 어종은 자취를 감추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상황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2년 출범한 관리공단은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인공어초 조성, 수산자원 기초연구 ▲자원 조성 기술 개발 ▲적지조사·생태환경조사 및 사후관리·효과분석, 수산자원 관리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운용 ▲기후온난화 관련 현장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 수산자원관리 촉진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사업을 위탁·대행하거나 내수면·소하성 수산자원조성 및 회복사업, 수산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및 관광사업, 수산자원의 브랜드화 사업 및 관련시설 운영 등도 관리공단의 몫이다.

최근 FIRA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참조기 어미 관리 및 자원 회복을 위한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해 서남해안의 참조기 자원 증가에 나서기도 했다.

◇갯녹음과 어장 황폐화에 신음하는 바다=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갯녹음(백화)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라고 부른다. FIRA에 따르면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됐다.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만8800ha 이상의 지역이 이미 '바다사막'이 됐고,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남해안 19개 시·군의 연안 수심 10m 이내를 대상으로 초분광 항공영상 촬영기술을 이용해 갯녹음 면적을 산출한 결과 남해안 전체 암반면적(8234ha) 중 33%에 달하는 2737ha 규모로 갯녹음이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 변화와 갯녹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1~2월 어획량은 13만4982t으로 전년 동기 15만2396t 대비 1만7414t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t을 밑돌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잡는(어선) 어업'에서 '기르는(양식) 어업'으로 대세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양식어업 역시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다숲과 목장, 인공어초 조성에 종묘 방류까지=해양수산부와 FIRA은 지난 10일 서울, 완도, 부산 등 전국 10곳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해 해조류를 심어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있다. 5회째인 올해는 '함께 만드는 숨쉬는 바다'를 주제로 했다. FIRA은 지난 2009년부터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을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 111개소에 총 1만2208ha의 바다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3043ha의 바다숲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오는 2030년까지 총 5만40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9개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안바다목장은 백령, 대청, 포항, 양양, 부안, 통영 등 5개소가 지난해 말 준공됐으며, NLL불법조업방지시설, 플랫폼 구축사업(태안, 보령, 홍성, 동해),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 등 신규과제 6개가 동시 추진될 예정이다. 전남을비롯한 전북, 경남, 경북, 강원 등의 해역에는 인공어초를 설치해 해조류의 서식을 돕고 있다.

올 초 FIRA은 수산종자방류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해 17개 주요 방류품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수산종자방류효과조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FIRA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할 해양 면적은 44만3000㎢로 남한 육지 면적의 4배가 넘는다"며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누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며, 환경과 자원을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국가 기반을 튼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수산물 생산능력 유지 고품격 브랜드화 필요해요"

정영훈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지난 5일 2017 완도해조류박람회를 찾은 정영훈(5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은 해조류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에 감탄하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스에 들어서는 입장객을 헤아렸다. 양식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식품으로도 적합한 해조류의 '전성시대'를 오래전 예견했다는 그는 완도가 고향인 갯사람이다.

완도수산고를 졸업한 뒤 1978년 부산수산대에 진학, 1987년 기술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발을 들였다.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해양정책학으로 석사, 다시 부경대(옛 부산수산대)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2013~2014년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2014~2016 수산정책실장을 거쳐 지난 3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어릴적부터 바다를 몸으로 익히고, 이후 30년간 해양수산 분야 행정을 맡고 대학원에서 관련 지식도 쌓아 여느 전문가보다 바다에 대한 식견이 높다. 그는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능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면서 제품의 브랜드를 만들고 고가전략을 통해 고품격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이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을 분석해 다른 수산물의 발전 잠재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산물 가공 시스템 구축,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기업 유치 및 육성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해조류박람회 개최기간에 고향 완도를 찾은 소감은.

▲1년에 한 두번씩은 꼭 찾는 편이다. 이번 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완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14년 첫 해조류박람회 당시 어업자원국장으로 최초로 정부 예산을 수립해 더 감회가 새롭다. 계기를 마련한만큼 앞으로 해조류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계열화하고, 대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의 비전은.

▲이제 잡는 어업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의 시대다.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가 양식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 자원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를 맡고 있는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바다식목일 제정, 바다녹화사업 운동본부 설립 등을 추진해온만큼 더 내실있게 기존 정책과 사업을 보완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볼 생각이다.

- 3년이라는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2030년까지 어업소득을 2010년 대비 2배로 높이고 바다 녹화를 전 연안의 75%까지 달성해 국민으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싶다. 주요 수산자원 중 고갈 또는 감소 우려가 있는 어종을 관리하는 등 맞춤형 해양수산 생태계 조성 및 관리, 2030년까지 5만4000ha의 바다숲 조성과 해역별 특성화 사업 마련, 수산자원 조성분야 정책지원 강화와 신규 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을 들 수 있겠다.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t 이하로 감소했는데.

▲1986년 173만t이었는데, 30년만에 그 절반 수준인 92만t으로 급감했다. 지구 온난화, 산란장 및 서식장 파괴, 남획, 불법조업 등이 그 원인인데, 최소 100만t 유지를 위해 멸치, 갈치, 오징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만들고 회유성 어종의 산란장 보호 및 조성에도 힘쓰겠다.

-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이다.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법정 기념일이 됐다. 벌써 5회째인데, 올해는 여수, 완도, 서울 등 10곳에서 지역 생태계에 맞는 바다식목행사를 가진다. 식목일(4월5일)처럼 바다식목일이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각인돼 황폐해져가는 우리 바다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육지 면적의 4.5배가 넘는 우리 바다의 건강성 회복과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도 건강한 바다가 있어야 가능하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바다를 위해서 살아온만큼 이 바다가 후대에도 그대로, 아니 더 건강하게 전해지기를 희망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